

성신 강림 대축일

기도서 P. 309 B해

- 제1독서(사 도 2. 1-11)
- 제2독서(고린 I 12. 3-7. 12-13)
- 복 음(요 한 20. 19-23)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훈
 편집 권 한 상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감 론



과 건

안 용 기 신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처럼 나도 당신들을 보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파견하셨고 오늘 이 시대 이 장소에는 나를 파견하십니다. 파견에는 반드시 임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은 보다 인간다워지려는 욕망이 충족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너와 내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끝내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먹고 성부께로 부터 보내주신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처럼 우리도 물질의 풍요로움, 명예, 권세에 대한 가치관을 상실한 유혹을 각박한 현실에서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전에 주님을 팔아 넘긴 유다스처럼 우리도 불의와 타협하고 허위를 묵인하고 생명을 위협 내지 말살하는 것들을 추종하고 자행하므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파견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할 때 골고타의 소외와 허탈감을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세적 강생자 주님은 골고타의 십자가 앞에서 내부에 일고 있는 간절한 거부적 반응을 느낍니다. “할 수만 있다면”을 세번씩이나 되풀이 하는 피땀 흘리는 겐세마니의 기도에서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게스스레 즐긴것처럼) 생명을 같이 하겠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막상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노모와 요한사도 그리고 연약한 여인네들이 속수무책 바라볼 뿐이었습니까. 주님은 절규했습니다. “성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십시오”하시며 평온히 숨을 거두십니다. 드디어 찬란한 부활의 서광이 온 세기를 비추었습니다.

주님의 파견자들!

너와 난들 목석이 아닐진대 뻔히 보이는 현세적 상실 앞에 “할 수만 있다면”의 현세적 갈등이 어찌 없겠습니까? 파견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잃을 때 것처럼 따르던 여러형태의 친구는 간에 없고 현세적 고통에 찌달릴 처자를 보았을 때 어찌 허탈과 소외감이 없겠습니까? 허나 주님께로 부터 파견된, 너와 나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우리를 위한 장엄한 대 기도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일인 성신강림 축일을 맞이해 성령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현동 전주교회 주임신부)



훈련이 잘 된

문화민족???

수단(Sudan)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다. 1956년에 독립되어 1969년에는 군사 쿠데타(coup d'Etat=지배계급내의 비주류파 또는 반주류파가 통치 조직의 개혁이나, 주류파가 담당하고 있는 정권을 이동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비합법적·무력적 기습 행동. 혁명 정변. 폭력 정변. ※ 註 새 우리말 큰사전(삼성 출판사)에서 옮김)가 있었던 나라이다.

수단의 국회 부의장 간두르씨가 엇그제 우리나라 국회 민관식 부의장의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를 방문하던 중 요인들과 테니스 끝에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한국의 기후, 아름다운 서울 거리, 그리고 훈련이 잘 된 문화민족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다. 물론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도 “훈련이 잘 된 문화민족”이라는 말에는 쉽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없는 한국민의 자존심이 있다.

수단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된 문화민족”이라니... 마치 “훈련이 잘 된 XXX”라고 불리는 것만 같다.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도 생각하기는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았기에 그런 말을 한 나라의 국회 부의장이 스스로 없었을까? 그것이 문제다.

우리에게는 빛나는 유산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슬기롭게 대처해나갈만한 유산이 있는 것이다. 가까이만 보더라도 그렇다. 4·19이후의 혼란을 우리의 대학생들이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았던가? 간첩이 내려오더라도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신고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잘 훈련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숲 정 이 산책



성신이 인도하는 데로...

부



성 명 서

우리는 지난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천주교 고산분당 관할지역인 완주군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의 164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신품종(노품)피해 및 보상 실태를 조사하여 4월 9일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결과를 가톨릭 농민회 전북지부 고산 협의회 이름으로 관계당국(농수산부·전라북도·완주군)에 진정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한 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이를 납득할 수 없어 다시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따라서 당국은 우리의 주장을 정중하게 심사숙고하여 합당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농수산부장관의 회신을 보면, "1차 피해 수율 조사와 2차 도진홍원의 정밀한 감수를 조사 결과에 의거 피해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간혹 불합리하였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우리는 "시행과정에서 간혹 불합리하였던 점이 있었던 것 같으면"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도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지사의 회신에도 문제가 있다. "피해 조사과정 및 보조 경위는 현지 출장한 도 직원이 직접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으로 우리들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피해조사 및 양곡지급에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으며" 했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그 명단을 공개할 수 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앞으로는 부안군에서 발생했듯이 "보상양곡의 노름밀친"이나 완주군 삼례읍에서 있었던 "생강 심고도 노름보상"받는 사례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완주군수의 회신도 마찬가지다. "본 조사기간은 9. 11~9. 25로서 조사일자에 따라 피해수율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했는데, 적어도 국가가 피해 농민을 상대로 한 보상행위가 "채수보기"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조사일자에 따라 피해수율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피해농민들의 주장을 "규정상 불가"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완주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계적인 처리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임실군수의 일부 추후 보상은, 우리의 주장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다.

결론은 여당인 공화당이 정부에 대해 말한 한 마디— "농민들, 농정불신 극도에" (조선일보 기사 제목)—로 충분하다. 최근에 있었던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판" 농수산부의 파렴치하고도 몰상식한 현실을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주장을 불평으로 돌리지는 말아야 한다. 공화당의 의견은 우리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여러 해에 걸쳐 주장한 바를 이제야 집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동안 우리의 활동이 "용공시" 되었다고 우리는 주장한 바도 있어, 우리는 공화당의 의견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주시할 것이다.

당국은 피해농민들의 거짓없는 요구에 합당한 보상을 해서, 공화당이 주장한 대로 "농민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될 때는 국민식량 확보는 물론 농촌사회 안정을 뿌리부터 흔들어 국민의 일체감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의 피해조사는 물론 보상과정도 계속 조사하여 발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요구, 주장한다.

1. 피해농민의 보상 요구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

1. 별첨과 같이 제시하는 일부 특정인에 대한 부정보상은 공정하고도 엄밀하게 조사하여 응분의 조처를 하라

1979. 5. 23

한국 가톨릭 농민회 전북지구 연합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알림>

신앙 대강좌는

6월 6일에 있을 예정이던 교구 평협의 계획 변경으로 쉽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욱 협조 바랍니다.

—교구평협

사제양성 위한 하얀토끼

금주내에 매듭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제양성추원회

□ 독사·뱀 물린데 백말 백종치료 완

복 사 폐 차 장

대표 송 주 원(노련초)

전화 ㉠ 2365

전주시 금암동 태평보령(옆)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복육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지역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한 동 압 (모예제)

(본사 지역 호남 출장소)

전주 ㉠ 4341 군산 ㉠ 3032 이리 8629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제12차 총회를 왜관 피정의 집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5월 26~27일에 왜관 피정의 집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재이신 김재덕 주교님과 전국 지도 김수창 신부님, 4개교구 지도신부님과 1개 전국단체 지도신부님, 12개 교구와 6개 단체에서 48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79년도 총회는 화기에애한 가운데 명실공히 한국의 평신도 총회의 면모를 보였다.

총회는 26일 오후 3시 김기철 전국회장의 개회사, 총재주교의 치사, 대구교구 평협 임학근 회장의 환영사, 전국지도신부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김주교님은 치사에서 “한국평협이 협의체이기 하지만 총회라는 점을 잊지 말고 교구나 단체에서 보는 좁은 시야를 털어버리고 전국차원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자”고 당부하셨다. 또한 “한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어려운 때일수록 뭉쳐 한 마음으로 순교자의 후예답게 자주성과 자율성을 살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자”고 간곡하게 호소하셨다.

첫날 각 교구와 단체, 전국 평협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감사보고를 들은 대의원들은 대구교구에서 준비한 간친회 자리에서 우의를 더욱 두터이했다. 한편 간친회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영화를 통해 하느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과 낙태의 해독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대구의 이문화 주교님으로부터 「복음적 교회상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강론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감을 더욱 깊게 했다. 이어 80년도의 사업계획과 2천여 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총회는, 금년 10월에 제2차 전국 웅변대회의 주제를 논의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주제는 중등부-「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5분 내외)」, 고등부-「오늘의 세태와 그리스도 정신(7분 내외)」이다.

그리고 한국 평협 총회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사전과 관련된 가톨릭 농민회의 사정을 전국 지도신부님으로부터 듣고, 교회의 입장을 성명서로 밝히었다.

본교구에서는 이번 총회에 전국 총재이신 김재덕 주교님, 교구지도 김봉희 신부님, 교구평협 조성호 회장과 유석중 부회장, 한상갑 사무국장이 참가했었다. (학생들로 웅변에 관심있는 교우들은 위의 주제로 미리 준비하여 9월에 있을 교구예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파티마 본당의 유명 규군이 참가해서 중등부 우수상을 획득했었습니다.)

그리스도 돕기 성금 금고 설치

베고프고 험뎨은 그리스도, 하느님 뜻을 따르다가 육에 갇힌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 바로 크리스찬의 할 일입니다. (마태오 복음 25장)

여러가지 사정으로 마음은 있으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고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 돕기 성금 금고>를 마련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성금을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성실히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은 <교구 평협-순정이 편집실>이나 <교구정의 평화위원회-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요심이 (305) 김병오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 3 4 6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주단 · 포목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진상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안 태(바오로)

전화 : 5 8 2 1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신일선풍기!

신일선풍기는 (금, 은, 시계)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 2 5 2

漢文 강의

□ 한시 · 명언 · 한문 · 삼식

고사성어 · 3,000자 단기완성 지도

□ 고급반 : 대학 · 논어 · 맹자 · 증용

오후 2시 · 8시

□ 아등반 : 오후 4시 · 5시

전주 한문 학원 2-7071

<전주우체국 후문옆 · 신우라사 2층>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소비자보호에 관심있는분 상담환영!

신세계 시계점(신장개업)

금 · 은 · 보석 · 각종시계

<신용판매 · 책임수리>

①계(조직)판매환영 ②월부, 납품

③교우, 학생 특별환인

장소 : 동문사거리 전화 : ②6718

장 상 준 드림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인권강연회 및 민족의 시인 김지하 문학의 밤...6월 4일(월) 오후 8시 정음성당에서
※ 주최: 정음 천주교회 ※ 후원: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2. 제6지구(금산·무주·장수·장계·진안·한들) 푸르실로 올드레아...6월 3일 오후 1시, 장계성당에서
 3. 엠마누엘 600차 기념 공개 셀: 3일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에서
 4. 한국 천주교 사료전시...6월 7일~9일 전북대학교 교양1관 120강의실
 5. 제 6 화 전주지구 학생회 친선 체육대회...6월 10일 오전 8시, 해성학교 교정
 6. 삼례성당 사제관 낙성식...11일(월) 오후 3시
 7. 완구 수진...교구 인성회에서, 시골 공소 어린이를 위해 6월 20일까지 장난감을 수집합니다
 8. 군산지구 예수승천 합동미사,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참가...1,500여명 ② 수지...182,470-140,600원=41,870원
- 엠네스티 인권강연회...12일(화) 오후 8시 가톨릭센터에서 강사: 문동환 박사
 농민회 총무 전자석(프란치스코), 농민회 활동 위해 교구 평협 사무실에 상주
 훈장이 편집실 전화성금, 감사합니다...삼례 최병윤 5,000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정태희 사도 회장 이복석

1. 축! 견진
 2. 프란치스코 3회: 3일(일) 오후 1시 30분
 3. 환자 영성체: 5일(화) 오후 2시
 4. 상지회 단합대회: 6일(수) 오전 8시 30분
 5. 영세 예비자(남자)교리
매주·목요일: 오후 8시 30분(사제관)
- 지난주 봉헌금: 249,399원

(노송동)

전화 ⑩7032 주임 신부 김점원 보좌 신부 김성복 사도 회장 김성복

1.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토요일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재속 청년회 월례회: 오늘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뜻있는 청장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5. 대학생회 야외모임: 6월 4일(월)오후 6시 30분까지
성당에 집결 본당내의 대학생은 빠짐없이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101,805원

(덕진)

전화 ⑩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복 사도 회장 유석상

1.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2. 미사시간 안내: 주일·평일-아침 5시·저녁 8시
 3. 공소미사: 금주-동산촌 3일 오후 8시
차주-내동리 10일 오후 8시
 4. 금일 평일저녁 미사는 보좌신부님 교육관계로 없음
 5. 사도회 월례회: 10일 공식미사 후
 6. 제대초 기증: 장윤옥 할머니
 7. 4지구 체육대회: 10일, 학생들은 꼭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51,970원 교무금: 69,410원

(복자)

전화 ⑩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성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김성원 형제력)
 3. 공동체 묵상회 제 5 차: 6월 9일~10일
아직 못 받으신분 사무실에 접수 하세요
 4.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히메레사씨지도
매주(화) 저녁미사 후-박신부님지도
 5. 특별헌금(제병·제주): 익명(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210,245원

(서학동)

전화 ⑩2276 주임 신부 오현택 보좌 신부 황인구 사도 회장 황인구

1. 축! 성신강림: 축영세 25명
 2. 감사: ① 레지오 옥외행사 ② 성모의 밤 행사
여러분 협조로 기록한 행사 되었음
 3. 봉헌금(교무금) 정성껏 봉헌하여 본당살림 도움시다
 4. 5월말 결산: 총 수입-3,310,121원
총 지출-3,307,842원 잔고-2,279원
- 지난주 봉헌금: 77,550원

(숲정미)

전화 ⑩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이강노 사도 회장 이강노

1. 축! 영세식: 성신강림 주일 오전 9시
교형 자매님들께서는 축하 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6월 3일(수) 공식미사 후
구역장님 반장님 꼭 참석 바랍니다
 3. 79년도 봄 판공성사에 빠진분 다음 성삼주일까지
판공성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애령회 소식
누굴다 부녀회장 김아가다씨께서 5월 28일 11시
선종 하셨습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5. 지난주간 신축기금: 남일액 4만원
서진동 백옥님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5,245원

(전동)

전화 ⑩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성 사도 회장 유석종

- ☆ 축! 성신 강림 대축일
1. 사도회: 공식미사 후(동·반회장 참석 바랍니다)
 2. 유아세례: 2시 미사 후
 3. 견진성사: 6월 10일 10시 미사 때
견진교리: 6월 4일~9일 저녁미사 후
 4. 5월말 결산: 총수입-8,259,610원
총지출-8,254,811원 잔액-4,799원
- ☆ 6월은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9,165원

(파티마)

전화 ⑩0915 주임신부 문정현 보좌신부 채수현 사도회장 채수현

- ◎ 축! 영세: 새로운 교우 형제분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마음껏 축하해 드립니다
1. 사도회: 매월 첫째·셋째 주 저녁미사 후
사도회 임원들은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구역미사: 9일-우진, 16일-호자2가, 23일-에그린
 3. 본당 자체교육: 6월 8일(금) 저녁 8시,
15일(금) 저녁 8시, 22일(금) 저녁 8시
 4. 견진 받으실 분: 매주(금) 실시하는 본당자체교육에
참석 하세요
 5. 교무금 좀 내주세요: 교무금 납부가 아주 부진
합니다 매월 조금씩 납부합니다
 6. 5월까지 결산: 수입누계-3,116,723원
지출누계-2,910,960원 잔액-205,763원
- 지난주 봉헌금: 52,235원